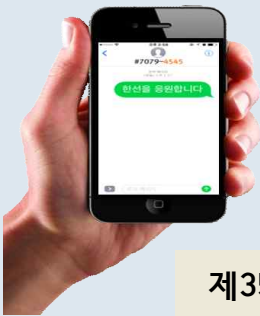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문명의 전환과 비트시대 -뉴노멀이 가져올 새로운 문명-**
[발제자] **이대영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 자 후 원**
#7079-4545

제356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현재는 컴퓨터가 인간에 종속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에 의해 인간의 삶이 규정되는 시대로 진입한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올 것이다.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설계된 미래를 찾아야 한다.

■ 포스트 코로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상으로부터 눈에 보이지만 결코 만져지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DNA에 의해 생명의 복제와 존속을 하는 물질적인 존재들의 세상이 아니라 비트 방식으로 정보에 의해서도 존재하는 비물질의 시대가 열린다. 아톰시대가 아닌 비트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 비트시대와 비트문명을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 새로운 용어를 제안했다. 비트시대는 현실과 가상세계에서 두 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를 '비트라이프'라고 칭한다. '비트라이프'는 비트로 이루어진 비물질의 의식의 세계, 더 나아가 가상공간에서의 삶을 의미한다. '비트닉스'는 기계와 공존을 허락하는 시민의식을 가진 보편적 존재이다. '비트닉스'들이 필연적으로 구성하게 될 네트로 구성된 국가는 '비티아'로 규정했다.

◆ 포스트 코로나와 문명의 전환

- ◆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인류의 문명사를 바꿀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인류는 개인의 칩거와 격리로 대응했다. 이는 국가로 확대되어 국경의 폐쇄를 불렀다. 해외여행과 비즈니스는 전격 중단되었고 물류 이동도 제한되었다. 생산기지의 국내화와 신 국수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의 역할과 기능 강화로 새로운 국가주의 정책이 등장할 것이고 개인의 자유 통제와 부분적 제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정부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휴먼소득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건강한 생태학적 삶의 방식이 설계되고 재택근무를 위한 스마트 홈, 오피스 등 주거 및 사무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 ◆ 포스트 코로나는 과거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혁명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종족의 생사를 거는 운명의 대결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규정하는 키워드는 현재의 영토, 민족을 중심으로 국가 시스템이 온전히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사태는 수천 년의 지난한 인간의 삶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을 상징하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 아톰(atom) 시대에서 비트(bit) 시대로

- ◆ 사피엔스는 네 차례의 혁명을 겪었다. 먼저 1차 혁명이 가져다준 변화는 뇌, 인지 혁명이다.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혁명은 기술, 농업혁명이다. 농경생활이 시작되면서 섭생의 변화와 거대 도시국가가 출현했다. 세 번째 혁명은 18세기에 발생한 산업혁명이며, 네 번째 혁명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데이터, 정보혁명이다. 5차 혁명은 코로나19 이후의 시기로 비트 세상이다. 비트는 아톰과 다르다. 아톰은 물질이므로 부피와 질량이 있고 감각적으로 인지된다. 그러나 비트는 정보이므로 질량과 부피를 갖고

있지 않다.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비물질의 세계 즉, 정보의 세계인 비트의 삶으로 규정한다. 비트 시대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로봇 혁명이다. 가상현실 시스템이 일상화되고 생명공학 및 나노기술이 발전하면서 호모사피엔스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시기이다.

◆ 비트라이프, 두 번의 삶

- ◆ 비트 라이프는 현실과 가상이 뒤엉키는 삶이다. 가상세계는 컴퓨터 게임처럼 가상공간에 인물, 사건, 공간, 배경을 비트 방식으로 건설한 것을 말한다.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는 비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페르소나라는 인격 대행체를 만든다. 이 페르소나는 자는 동안 돌아다니고 인간에게 그동안 집적한 모든 경험을 얘기해준다. 나와 페르소나가 공유되는 삶이다. 미래 세대는 죽은 자와의 대화에도 익숙해질 것이다. AI 기술 발전으로 머지않아 초상화가 말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전자 초상화 속 존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게 설계되며 살아있는 자와의 대화 기능까지 탑재될 것이다. 단순한 전자 초상화의 단계에서 완전몰입형 가상현실이 연결되면 세대를 초월한 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은 곧 시간의 소멸을 의미한다. 비트라이프로 인간의 의식과 생각이 확장되고 인간은 꿈의 세계에서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느낄 것이다.
- ◆ 비트라이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략 세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시냅스 맵핑, 초미세 나노로봇,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그것이다. 뇌의 지도가 해석되면 시냅스를 타고 뉴런에 전기신호를 전달한다. 이때 머리카락 약 1만 분의 1 크기인 초미세 세계에서 작동하는 나노로봇이 필요하다. 이렇게 데이터화된 인간의 오감을 실시간으로 가상공간에 전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지식은 즉각적으로 뇌에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가상과 현실이 뒤엉키게 된다. 나의 페르소나는 그 세계에서 홀로 움직여 다닐 것이며 잠자는 사이 방대한 데이터를 다시 축적하고 연상하고 현실에 내가 접속하면 페르소나의 삶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 비트닉스, 인간과 기계의 혼성과 공존

- ◆ 비트닉스는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시대의 인간상이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하고 혼란스러울 만큼 인간과 기계가 하나로 혼성되는 것을 말한다. 비트닉스는 호모 사피엔스의 마지막 종족이자 비트시대의 첫 종족이며 인간과 기계가 하나라고 인식하게 된 최초의 인류이다. 비트닉스는 인간의 뇌가 컴퓨터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컴퓨터 속 램에 해당하는 뇌 속의 해마는 인간 초기 기

역을 총괄한다. 가상세계 즉 네트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부화한다. 가상세계의 문명은 곧 비트문명이다.

◆ 비티아, 비트닉스로 구성된 네트국가

- ◆ 휴대폰과 인터넷이 연결되며 인간의 욕구가 추가되었다. 인터넷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속 인간의 ‘네트욕구’이다. 비트시대의 인터넷은 언어만큼 강력하다. 비트닉스들은 네트 속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상하여 비티아를 건설한다. 네트워크 커뮤니티 국가를 ‘네트국가’라고 한다. ‘네트국가’는 현실세계처럼 다양한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일상용품을 구매하고 다양한 여론을 형성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 발생 시 현실 세계 국경은 폐쇄되지만 비트 속 네트국가 영토는 무한히 확장한다.
- ◆ 비트문명의 완성은 비트닉스 공동체가 형성되며 시작한다. 비티아가 등장하는 순간 현실의 삶이 비트에 종속되는 권력의 대전환이 발생한다. 자기들만의 언어와 교육과 문화와 놀이를 만들어가며 생존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와 구매 시스템도 완벽하게 설계될 것이다. 자신들의 비티아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 및 안보용 해커시스템을 갖추고 현실 국가의 끊임없는 위협과 상대하며 사이버 전쟁도 수행할 수 있다. 비트닉스의 세상은 점차 공룡처럼 자라날 것이고 현실의 국가들은 비티아와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 제정일치 시대에서 투쟁을 거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혁의 물결에 대비해야 한다. 이 물결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미래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